

## 기도의 회복

마 7:7-12

현재 미국 대통령인 George W. Bush 의 아버지인 George Bush 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기도로 시작한 멋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 머리 숙여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힘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권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란 구절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용할 곳은 오직 하나이니 그것은 국민을 섬기고 돕는 데만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용기 있는 신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은 기도의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호흡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오기가 싫어지고, 이기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사이가 파경으로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어두워져만 갑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많은 분들한테 예전에 연세 드신 교회의 어머님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부족이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일 때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공을 들입니다. 결국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역시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업이 잘되기를 구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미신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이런 모든 것을 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마 6:33 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둘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애인을 찾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찾습니다. 기업인은 돈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찾고 삽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2-13 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만났다고 믿으신 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불확실한 분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가리켜서 "문" (요 10:9)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 3:20 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문을 두드리려 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성한 노동이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꾼이 되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